석유공사, 창립 25주년 무분규 선포

노사 한마음 다짐 … 2009년까지 세전이익 3000억원 달성 비축유 확대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와 석유공사 노동조합(위원장 안재숙)이 3월3일 창립 25주년을 맞아 경기도 안양 본사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노사 한마음 선포식>을 개최하며 무분규를 골자로 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석유공사 노사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노사화합으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하며 실천방안으로 무분규, 연봉제의 조속한 정착, 2004년 임금협약 조기 타결 등을 포함시켰다.

석유공사는 1998년 국내 대륙붕에서 경제성 있는 가스전을 발견한 이래 2004년 중 천연가스를 생산·공급할 계획이며, 해외 유전개발 사업에서도 최근 베트남, 리비아 등에서 원유 생산에 성공하고 신규 광구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2004년 말에는 자주 원유 공급율을 4% 이상으로 확대해 2010년까지 자주 원유 공급율 10%를 달성할 계획이다.

† 한국석유공사 노사 한마음 선포식

또 정부비축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해 단기적인 석유 공급위기 시를 대비하고 있으며, 나아가 석유 비축자산을 적극 활용해 동북아 석유 물류 중심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국가 에너지 자립을 선도하는 세계적 국영석유기업"이라는 장기비전 아래 창립 30주년이 되는 2009년까지 세전이익 3000억원 달성을 통한 한해 공급가능물량 3억 배럴, 매출액 3조원 확보라는 전략목표를 세웠다.

특히, 2002년 8월 이억수 사장 취임 이후 공격적인 경영 아래 공공성은 물론 수익성도 강조해 2003년에는 공사 창립 이래 최대 수익을 실현하고 비축유 구입에 재투자하는 등 효율성 높은 공기업으로 재도약하고 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4/03/04>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